



7면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음 3월 28일) 제2520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경제 활성화 함께 노력하자”

송하진 지사, 총선 도내 당선자에 축하의 뜻 전해 “전북 자존의 시대, 실용적 정책대안 만들 것” 주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7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 당선자 전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당선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전

북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당선자들에게 “선거 기간 현장에서 만났던 민심을 겸허히 경청하여 전북 자존의 시대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전북도정이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낙선한 후보들에게 “지역발전 전을 향한 마음은 모두가 하나임을 도민들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사는 이번 총선에 대해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에도 67%라는 높은 투표율로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면서 “도민 참여로 만들

어진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시스템 이어달로 위기 극복의 동력이라는 우리 도민의 믿음과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빠른 시일 안으로 도내 당선자들과의 간담회를 마

련해 코로나19 극복방안을 비롯하여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주요 공모사업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꼼꼼한 협업체계를 조기에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 구도심 차도, 사람 중심 길로 전주시가 총사업비 60억2700만원을 투입해 전라감영로와 서노송예술촌 권심도로에 인도를 개설하고 거리 경관을 만드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서노송예술촌 권심도로. <관련기사 4면>

전주시,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착수

이달 중 전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단계별 사업 구성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도시인 전주시가 국제 슬로시티 재인증 준비에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에 국제슬로시티 재인증과 전주만의 슬로시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제3기 국제슬로시티 전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 전역을 범위로 추진

할 사업의 기본구상과 전략사업의 단계별 세부실행계획, 대내·외 홍보방안 등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은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의 타당성을 발굴하고, 그간 추진했던 슬로시티 정책에 대한 성과들을 분석키로 했다. 동시에, 제3기 국제슬로시티 전주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슬로라이

프 운동, 슬로푸드, 슬로 투어리즘 등 단계별 추진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을 제시하고 전주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한편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대한 대내·외 홍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시는 2010년 11월 27일 전주한옥마을을 거점으로 첫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6년 4월 27일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재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윤성 기자

道,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이달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 중인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다. /김진성 기자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도시브랜드화 추진

슬로건·대표 디자인 제작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미래도시 새만금을 브랜드화하고 새만금의 비전과 미래 이미지를 친숙하게 형성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아이러브새만금(I♥SAEMANGEUM)'이라는 슬로건(구호)과 새만금 대표디자인을 활용해 새만금을 알릴 계획이다. 새만금에서는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거주인구 2만5000명, 면적 6.6km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공항·신항만·도로·철도 등 인프라(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재생에너지·미래차 등과 같은 미래산업 연관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발청은 이러한 새만금의 변화상과 미래상을 국민에게 효과적 알리기 위해서 새만금 고유의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만금의 도시브랜드를 표현한 2종의 대표디자인과 새만금을

친숙하게 표현한 '아이러브새만금'이라는 슬로건 디자인을 제작했다.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대표디자인은 중심부에 아이러브새만금 슬로건을 공명으로 배치해 새만금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콘셉트를 공유한다. 슬로건과 함께 새만금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표현하기 위해 '드림 오브 뉴 월드(Dream of New World)', '클린(Clean)', '에코(Eco)', '판타지(Fantasy)', '해피(Happy)', '럭키(Lucky)' 등의 포어도 흥미롭게 배치했다. 친환경 해양공간에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새만금에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을 조화롭게 표현해 스마트 미래 도시로서 새만금의 미래상을 표현했다. 머그잔이나 우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표디자인과 슬로건을 적용해 홍보 물품을 제작할 계획이며, 이를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올해 개최 예정인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식 등의 행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